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金鳳
 印刷人 金金鳳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普口座: 010983-31-0513119
 私書函: 서울 清涼郵遞局 137號

88年度定期總會盛了

京鄉宗親3百80餘名參席

1988年度定期總會는 88年5月5日上午11時부터 서울 중浪子忘憂洞 龍宮宮前에서 京鄉各地的 宗親 三三〇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 되었다.

이날 總會에서 明會 會長은 大宗會館建立 10週年(八月 三十日)을 맞이한 이해의 感懷를 想起하면서 그 동안의 事業成 果를 評價說明하고 이어서 大 先祖의 顯揚事業과 宗親間의 親睦을 위한 事業을 더욱 活 潑히 展開할 時期라고 強調하 는 要旨의 開會辭에 이어 去年

現 國會議員 大韓藥師會 會長 工學博士 光秀 建國大學校 副教授

7年度 決算報告 八八年度 歲入, 出豫算案이 原案대로 通過 되었으며, 지난 四月二十九日 理事會에서 定款改正案이 審議 可決 되었음을 報告하였다.

또 이날 總會에서는 八八年 二月에 學位를 取得한 三名의 博士에게 祝賀牌과 아울러 副 賞으로 金一封式을 傳達하였다.

祝賀牌授與者
 經營學博士 佐會
 現證券監督院 檢査役
 經營學博士 明燮

文靖公派宗會에서는 李朝成 宗朝에 左議政을 지내신 上洛 府院君 文靖公의 事蹟碑를 抱 川의 墓下에 建立하게 되었다.

翼元公의 曾孫인 公은 世宗 朝에 登科하여 成宗까지 六代 의 임금을 섬기면서 많은 治績 을 남겼으나, 歲久年深하여 舊 碑가 磨滅되어 多年間 改竄을 計劃하던중 光州에 居住하는 後 孫奎會氏가 特殊한 誠力으로 製作費를 專擔하니 六尺碑長에 龍冠龜台가 七尺餘萬원이라 이 에 感動한 宗孫인 前山林廳長 璨會氏를 비롯해서 여러 後孫 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碑文이 作成되어 現在 光州에서 刻字中에 있으 며 堅立時期는 未定이나 暑節 을 避해서 初秋頃으로 豫定하 고 있다.

上洛府院君文靖公 事蹟碑建立

後孫奎會氏의 特殊誠力으로

大宗會定款改正案通過

全國理事會에서 審議通過 總會에 報告·施行

지난 四月二十九日 大宗會 會議室에서 全國理事會를 開催 하고 總會에 上程할 過年度 歲入, 出豫算報告書와 新年度豫 算案을 審議하고 이어서 前年 度 總會에서 理事會에 委任한 定款改正案을 贊成25、棄權6、 으로 通過하였다.

舊定款은 지난 一九六八年大 宗會創立 富時에 制定한 關係 로 二十年 동안 發展한 大宗會 의 現實에 비추어 定款改正의 必要性에 勘案해서 一九六五年 부터 法曹人과 教授 및 斯界의 權威者로 하여금 12名을 選出 定款改正委員會를 構成하여 三 年間的 陳述 끝에 八七年度 總 會에서 理事會에 委任하므로서 이를 審議 通過하고 總會에 報 告하고 施行하게 되었다.

上洛府院君文靖公事蹟碑文(全文)

嗚呼悲夫 府君之玄堂是治于國葬 檣杆華麗하고 儀物俱全이 可料나 歲垂五百에 瑩域이 自荒하고 碑面이 磨滅되어 爲後孫 子로 難舉 恥面之際에 十七代 孫奎會氏가 此竭之費를 獨擔 誠하고 靑孫璨會氏는 沒念是役하여 乞得 信筆하고 有意之 僉宗이 特殊 誠力으로 補其 告功하니 幸哉 其 願未嘗 記表于 不忘之 的하노라.

宗朝에 左議政을 지내신 上洛 府院君 文靖公의 事蹟碑를 抱 川의 墓下에 建立하게 되었다.

翼元公의 曾孫인 公은 世宗 朝에 登科하여 成宗까지 六代 의 임금을 섬기면서 많은 治績 을 남겼으나, 歲久年深하여 舊 碑가 磨滅되어 多年間 改竄을 計劃하던중 光州에 居住하는 後 孫奎會氏가 特殊한 誠力으로 製作費를 專擔하니 六尺碑長에 龍冠龜台가 七尺餘萬원이라 이 에 感動한 宗孫인 前山林廳長 璨會氏를 비롯해서 여러 後孫 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碑文이 作成되어 現在 光州에서 刻字中에 있으 며 堅立時期는 未定이나 暑節 을 避해서 初秋頃으로 豫定하 고 있다.

嗚呼悲夫 府君之玄堂是治于國葬 檣杆華麗하고 儀物俱全이 可料나 歲垂五百에 瑩域이 自荒하고 碑面이 磨滅되어 爲後孫 子로 難舉 恥面之際에 十七代 孫奎會氏가 此竭之費를 獨擔 誠하고 靑孫璨會氏는 沒念是役하여 乞得 信筆하고 有意之 僉宗이 特殊 誠力으로 補其 告功하니 幸哉 其 願未嘗 記表于 不忘之 的하노라.



88年度通常會費納付의件

통상회비는 大宗會의 운영비 의 一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定款으로 이를 定하고 있으나 今오는 八월내로 동봉한 「우 편내채구좌」용지를 이용해서 서 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九八八年 七月 十五日
 會長 金明會白

※ 同封한 「우편내채구좌」用紙 에 보내실 金額과 보내시는 분의 住所 姓名을 記入하시 고 派를 표시 하셔서 各가 운 우체국에 내시면 됩니다. (既納付人除外)

惡德商人의 欺瞞行爲에 對한 警告

近來에 宗親들의 電話番號나 住所等을 探索해서 大宗會 事務長이라 云云하면서 書籍을 비롯해서 各種物品을 強賣하는 惡德者가 있어 宗親들이 被害를 입고 있는 事實이 있어오니 各宗親께서는 이에 眩惑되지 마시기 바라오며 또 이들은 우리 安東金氏만이 아니라, 慶州·延安·金寧 그밖의 宗中을 팔아서 ○ 大宗會의 任員이라 하고 甚之於各 大宗會의 任員과 位置 等을 正確히 대고 있으니 우리 宗親뿐만 아니라 모든 金氏에게 周知 徹底를 期하시어 이러한 被害를 防止할 수 있도록 各自 留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安東金氏大宗會

(전호에서 계속)

중서성(中書省)으로부터 조 선소(造船所)를 설치할 장소를 지정해온 전주도(全州道)의 변 산(辺山)과 나주도(羅州道)의 천관산(天冠山)은 다같이 목재가 풍부한 해변(海邊)의 산(山)이었다. 이러한 장소를 선택한 것을 미루어 생각한다면, 조선(造船)에 대한 일체의 일은 고 려의 국토(國土)에 밝은 홍다 구(洪茶丘)의 입안(立案)이었 고 그것이 세조(世祖) 또는 중 서성(中書省)의 명령(命)으로 서 나온 것이 틀림없었다.

이날부터, 개경(開京)의 군 신은 물론이요, 고려전국의 백 성들이 선풍(旋風)속에 말려들 어간것 같은 상태였다. 삼만 백명의 공장(工匠)과 역부(役 夫)를 징발(徵發)하여, 十五일 부터 역사(役事)를 시작한다고 하니, 그 번망(煩忙)한 상태 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고 려사(高麗史)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風濤(20) 井上靖 著

金崙會 譯

이때가 마치 역기략역(驛驛絡繹), 서무번극(庶務煩劇), 기한급박(期限急迫), (註)역마와 사람의 왕래가 끊임없이 계속 되고 분주하여 모든 일이 번거 롭고 복잡하며 기한이 급박해 졌다 하여 전보(電報)와 같이 급해져서 백성들은 이에 무척 고민하고 있었다.

一월 十五일부터 조선(造船)의 일이 시작되었다. 주어진 수 량의 병선을 주어진 기일에까 지 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 다.

김방정(金方慶)은 그 임무에 취임하였는데, 곧 문제가 된것 은 병선(兵船)의 양식(樣式)이 었다. 만공(蠻風)송나라 양식)의 양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 었으나, 그걸로 한다면, 공비(工費)도 많이 걸리고, 또 도저 히 기일까지 낼 수가 없었다. 김 방정(金方慶)은 사람을 중서성(中書省)에 파견하여, 고려양식(高麗樣式)을 채택할 것으로 하

기를 얻어보기로 했다. 여러가지 지장이 여러형태로 야기 되었다. 홍다구(洪茶丘)는 병선(兵船)제작의 양식에 대 고, 그 문장도 일체의 허식(虛 飾)을 버리고 미문여구(美文麗 句)도 전부 피하였다.

본년 정월 二일, 배신(陪臣) 데기타의 일은 일체 귀를 기 울이지 않았다. 독촉하는 것만 급하였다. 원종(元宗)과 김방 정(金方慶)이 제일 두렵게 여 기는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 으나 그것은 일본 정벌군의 조 직진용이 분명해졌을때, 거기에 또 정월 六일 내도(來到)한 홍 다구(洪茶丘)의 참자(參子)에 과(負課)가 내릴것인지가 걱정 이었다. 군병(軍兵)은 물론이 요, 수수(水手), 역부(役夫) 등 물건들을 배신(陪臣)허홍(許洪) 을 새로 징집(徵集)하는 것은 과(負課)로 존(許)祿遊에 명(命)하

고, 그 문장도 일체의 허식(虛 飾)을 버리고 미문여구(美文麗 句)도 전부 피하였다.

본년 정월 二일, 배신(陪臣) 데기타의 일은 일체 귀를 기 울이지 않았다. 독촉하는 것만 급하였다. 원종(元宗)과 김방 정(金方慶)이 제일 두렵게 여 기는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 으나 그것은 일본 정벌군의 조 직진용이 분명해졌을때, 거기에 또 정월 六일 내도(來到)한 홍 다구(洪茶丘)의 참자(參子)에 과(負課)가 내릴것인지가 걱정 이었다. 군병(軍兵)은 물론이 요, 수수(水手), 역부(役夫) 등 물건들을 배신(陪臣)허홍(許洪) 을 새로 징집(徵集)하는 것은 과(負課)로 존(許)祿遊에 명(命)하

고, 그 문장도 일체의 허식(虛 飾)을 버리고 미문여구(美文麗 句)도 전부 피하였다.

본년 정월 二일, 배신(陪臣) 데기타의 일은 일체 귀를 기 울이지 않았다. 독촉하는 것만 급하였다. 원종(元宗)과 김방 정(金方慶)이 제일 두렵게 여 기는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 으나 그것은 일본 정벌군의 조 직진용이 분명해졌을때, 거기에 또 정월 六일 내도(來到)한 홍 다구(洪茶丘)의 참자(參子)에 과(負課)가 내릴것인지가 걱정 이었다. 군병(軍兵)은 물론이 요, 수수(水手), 역부(役夫) 등 물건들을 배신(陪臣)허홍(許洪) 을 새로 징집(徵集)하는 것은 과(負課)로 존(許)祿遊에 명(命)하

고, 그 문장도 일체의 허식(虛 飾)을 버리고 미문여구(美文麗 句)도 전부 피하였다.

본년 정월 二일, 배신(陪臣) 데기타의 일은 일체 귀를 기 울이지 않았다. 독촉하는 것만 급하였다. 원종(元宗)과 김방 정(金方慶)이 제일 두렵게 여 기는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 으나 그것은 일본 정벌군의 조 직진용이 분명해졌을때, 거기에 또 정월 六일 내도(來到)한 홍 다구(洪茶丘)의 참자(參子)에 과(負課)가 내릴것인지가 걱정 이었다. 군병(軍兵)은 물론이 요, 수수(水手), 역부(役夫) 등 물건들을 배신(陪臣)허홍(許洪) 을 새로 징집(徵集)하는 것은 과(負課)로 존(許)祿遊에 명(命)하

고, 그 문장도 일체의 허식(虛 飾)을 버리고 미문여구(美文麗 句)도 전부 피하였다.

본년 정월 二일, 배신(陪臣) 데기타의 일은 일체 귀를 기 울이지 않았다. 독촉하는 것만 급하였다. 원종(元宗)과 김방 정(金方慶)이 제일 두렵게 여 기는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 으나 그것은 일본 정벌군의 조 직진용이 분명해졌을때, 거기에 또 정월 六일 내도(來到)한 홍 다구(洪茶丘)의 참자(參子)에 과(負課)가 내릴것인지가 걱정 이었다. 군병(軍兵)은 물론이 요, 수수(水手), 역부(役夫) 등 물건들을 배신(陪臣)허홍(許洪) 을 새로 징집(徵集)하는 것은 과(負課)로 존(許)祿遊에 명(命)하

고, 그 문장도 일체의 허식(虛 飾)을 버리고 미문여구(美文麗 句)도 전부 피하였다.

본년 정월 二일, 배신(陪臣) 데기타의 일은 일체 귀를 기 울이지 않았다. 독촉하는 것만 급하였다. 원종(元宗)과 김방 정(金方慶)이 제일 두렵게 여 기는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 으나 그것은 일본 정벌군의 조 직진용이 분명해졌을때, 거기에 또 정월 六일 내도(來到)한 홍 다구(洪茶丘)의 참자(參子)에 과(負課)가 내릴것인지가 걱정 이었다. 군병(軍兵)은 물론이 요, 수수(水手), 역부(役夫) 등 물건들을 배신(陪臣)허홍(許洪) 을 새로 징집(徵集)하는 것은 과(負課)로 존(許)祿遊에 명(命)하

고, 그 문장도 일체의 허식(虛 飾)을 버리고 미문여구(美文麗 句)도 전부 피하였다.

본년 정월 二일, 배신(陪臣) 데기타의 일은 일체 귀를 기 울이지 않았다. 독촉하는 것만 급하였다. 원종(元宗)과 김방 정(金方慶)이 제일 두렵게 여 기는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 으나 그것은 일본 정벌군의 조 직진용이 분명해졌을때, 거기에 또 정월 六일 내도(來到)한 홍 다구(洪茶丘)의 참자(參子)에 과(負課)가 내릴것인지가 걱정 이었다. 군병(軍兵)은 물론이 요, 수수(水手), 역부(役夫) 등 물건들을 배신(陪臣)허홍(許洪) 을 새로 징집(徵集)하는 것은 과(負課)로 존(許)祿遊에 명(命)하

음니다. 또 제주(濟州) 주둔군 장졸 一천 四백명의 七개월분의 식량을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 음니다. 함께 二천 九백 四십 입

의 오토(奧魯), 구대지(潤端赤)의 군량(軍糧)이 八천석, 마량(馬糧)이 一천 三백 二十五석, 이 것들을 전부 우리 나라에서 지 급하였음니다. 또 지원 一〇년 (至元十年 西紀 一二七二年) 十

二月 이후 중서성(中書省)의 지시를 받들어, 제주(濟州)의 백성 一만 二백 二十三명에게 전 부 식량을 공급(供給)하였음니

다. 이후 군병(軍兵), 군마(軍 馬)에 충당한 식량은 이미 끝

나. 전년(前年)에 병선전조 (兵船建造)하고 四월에 대군이

을 토벌(討伐)하고, 五월에 돌

아갔음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여, 가을에 이

조선공장(造船工匠)과 역부(役 夫)와 주둔(駐屯)하였다가 또

우리나라 백성들은 힘을 잃

고 쇠잔한 상태이며 얼마 전에

이동하여가는 군마(軍馬)와 제

田經略使) 혼도(折都), 고려귀

부군민총감(高麗歸附軍民總監)

홍다구(洪茶丘)에 대해서, 八월

을 기하여 일본을 치라는 명령

이 내려졌다. 이와 동시에, 고

려(倭寇)를 징수(徵收)하여, 이

에는 조경군(助征軍) 五천 六백

명의 동원지시가 있었다. 이 五

천 六백명은 고려가 혼도의 명

을 부과하여도 이것을 공급하

는데 충충하기가 불가능함니다.

중외(中外)의 관리들이 백성으

로부터 착취(擄取)하여 남는 물

건이 없음니다. 엄드려 원하

진대, 二만석의 식량으로서, 저

의 나라의 공급할 모든것을 충

족시켜 주신다면 거국적으로 온

백성들이 감격할 것이며, 영원

히 성은(聖恩)을 잊지 못할 것

입니다.

이 표문을 휴행(携行)하는과

여필(郭汝弼)과 잇갈려 세조로

부터의 조사(詔使)가 왔다. 원

종(元宗)은 二월에 중서성(中 書省)에 바친 상서문(上書文)

였으나 무슨 병인지 의사도 알

지를 못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安東金氏在日本宗親會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顧問

會長 金浩圭 (都評議公派)

總務 金泰成 (都評議公派)

金泰弘 (都評議公派)

金又璘 (都評議公派)

金鍾秀 (都評議公派)

金彰彰 (都評議公派)

金浩喆 (按廉使公派)

金泰煥 (都評議公派)

金烈烈 (都評議公派)

金榮榮 (都評議公派)

金鶴鶴 (都評議公派)

金星潤 (正義公派)

金泰恒 (都評議公派)

金哲哲 (都評議公派)

金旭旭 (都評議公派)

金周周 (都評議公派)

金熙丞 (都評議公派)

金熙中 (都評議公派)

金基中 (都評議公派)

金寅彪 (正義公派)

金守守 (大司成公派)

金萬萬 (大司成公派)

金植植 (大司成公派)



家庭에서의 人間教育

수유여자중학교 새마을어머니회 강연내용

인간교육연구원 원장 金道振 (按廉使公派)

여러분!

교육이란 지식교육 기술교육 예능교육 체육교육등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교육 즉 인간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정부 학교는 물론 각 매스컴 가정에서 까지 인간교육은 뒷전에 미루어 놓고 지식교육 기술교육 예능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 우리사회의 실정입니다.

어머니들께서도 기회 있을때마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백점맞으라를 외치지 않으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효도하는 생각이 키워져 나가는지, 나라를 사랑하는 생각이 어떻게 싹터 나가는지, 어떻게 스승이나 형이나 자기보다 연장자 또는 노인들에게 공경심을 가지고 대하는지, 어떻게 친구들과 사귀는데 신의를 잃지 않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써 커져 가는지를 관심있게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여기오신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자녀교육 방법이 궁급합니다.

대학생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민주주의 하자고 야단법석하더니 민주주의를 시작해 놓고 나서는 거리로 뛰쳐나와 화염병과 돌로 경찰과 대진하는가 하면은 교수를 때려입원시키고 총장실에 불을 놓아 학교이사장을 내쫓는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폭행과 무질서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것이 대학생 신분으로써 할일입니까?

공부잘해라 백점 맞으라식의 지식위주교육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느분의 얘기가 서양적이려면 다 좋다고 하더군요?

서양인들의 물질문명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대통령 문교부장관들이 해방후 40년간을 서구식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살아왔고 서구물질문명에 뒤져왔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좀더 잘살아 보자고 또 그들의 물질문명을 뒤쫓다보니 우리정신은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서구식 개인주의 교육만을 해왔던 것입니다.

● 서양인들에게 배울것은 따로 있다 ●

데모는 하되 방법은 배워야죠. 내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을때의 일입니다.

정문앞에 조그마한 텐트가 들어 쳐있었고 순경들이 무언가를 날라다 주기에 다가가서 알아본즉 빵과 번기를 갖다주는 것이었습니다.

팻말에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묵묵히 텐트를 쳐놓고 자기네들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었읍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국민교육헌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효도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모든 행동사고방식의 기본은 효가 아닙니까?

공부잘해서 출세하는것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효를 하기 위해서요. 나라 사랑하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것도 궁극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효도 하겠다는 기본정신에서 나온것이라고 말해서 과히 어긋남이 없으리라 믿읍니다.

그런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음악도 서양 팝뮤직이 아니면 안되고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창이나 가요 등은 이를 부르거나 들으면 자기네들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서양식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을 조금씩은 변하고는 있지만... 또 서양인들이나 하는 부모에게 맞상대 하려들고 말대답은 물론 부모고 나는 나라는식의 사고방식에까지 이르렀읍니다.

T.V이나 냉장고 비행기나 컴퓨터에

★ 大邱市宗親會에서는 지난 5월 29日晚村洞遊園地에 있는 시민식당에서 1988年度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

200餘名の宗親이 參席한 이날總會에서는 87年度決算報告에 이어 基本財産造成에 對한 問題를 眞摯하게 討議決定하였다.

★ 淸州大學校藝術大學 산업디자인科專任講師인 翼元公派泰喆氏는 지난 6월 1日~6日까지 롯데美術館에서 銅版畫展을 開催하여 盛況裡에 끝마쳤다.

★ 淸州 胎生인 泰喆宗親은 1979年에 淸州大學校造型大學 生活美術學科를 卒業하고, 다시 弘益大學校 産業美術大學院을 卒業하였으며 그 후 10余年間, 30余回나 國內·外의 展示會에 出品하여 好評을 받은바 있었다.

★ 淸州大學校藝術大學 教授인 按廉使公派 在寬宗親은 지난 6月 8日~14日에 서울 靑龍리 현대에서 西洋畫 個人展을 開催하여 盛況裡에 끝마쳤다.

★ 弘益大學校美術大學과 同大學院에서 西洋畫를 專攻한 在寬教授는 그동안 國內와 日本等地에서 40回에 가까운 招待展과 個人展을 가진바 있으며 「東洋의 空間意識을 西洋의 것으로 變遷하는 理知에서 相剋과 調和의 새로운 世界를 열어 주고 있다」는 評을 받고 있다.

★ 大司成公派 副會長 在熙氏의 長男 興會宗親은 지난 6月 8日 美國 유라大學校에서 工學博士學位를 取得하였다.

밀려서 우리 정신마저 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도가 아닌 보도로만 질서있게 일정한 구간을 팻말을 들은채 행진하고 자진해산하는 것입니다.

왜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며 최루탄을 쏘야 합니까?

또 교통질서를 배워야 하지요.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차들이 교통순경도 없는 거리를 몰호르는듯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 나가는 까닭이지요.

우리나라에는 그들보다는 자동차수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도 차사고는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 미국사회는 흔들린다 ●

우리나라보다 일본보다 대만보다 아니 세나라를 다합친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큰 거대한 미국이란 나라가 손바닥만한 우리나라에게 담배종 사달라 환율좀 올려달라 자동차 좀 그만 팔아달라는 식으로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하게끔 되어 버렸읍니다.

재정적자와 누적된 무역적자로 인해서 미국경제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크고도 부자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는 주장합니다.

그네들은 가족보다 나를 먼저 회사보다 나 국가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 사상과 검소나 절약을 모르는 사치생활로해서 자기나라 제품보다 일본의 요요다차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더 마음에 들면 국가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꺼럼낌 없이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나 사치스러운 생활이 미국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 가정교육에 대하여 ●

1.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 調達廳次長인 翼元公派 泰昇宗親은 지난 5月 19日 附로 調達廳長에 昇進하였다.

★ 忠北道·淸州市宗親會에서는 지난 5月 29日 淸州市內 舊龍華寺 境內에서 1988年度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 近200餘名の宗親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이날總會에서는 過年度決算報告와 今年度豫算案을 審議可決하고 會長 得榮氏의 辭任으로 인해서 前淸州市副市長 允會(의원공파)宗親을 選任하였다.

◆ 消息 ◆

密直司使公派
金榮應

서울·西大門區 弘濟3洞
270-112

都事公派
金鍾鏞

서울·西大門區 大峴洞 33-12
전 화 : 362-6030

宗門의現場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書雲觀正公派 鏡水門中編

새로開通된 中部高路道路를 서울千戶洞에서 進入, 廣州를 지나서 二分이면 第二터널을 通過하는데 바로 出口에서 右便으로 눈을 돌리면 具石物로 治山한 墓域이 보인다.

이곳이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의 鏡水山이니, 安東金氏 書雲正公(諱 經)의 六代孫 南崖公(諱 弘度)以下 三世의 世葬地이며, 가까이 보이는 작은 聚落이 五百年間 世居한 書雲正公派 鏡水門中이다.

廣州郡에서 四km가 남짓하다. 이 마을은 郡內에서도 보기 드문 山間僻地로서, 마을 앞을 貫通한 高路道路에는 車輛의 往來가 汎濫하지만 이 마을 사람에게는 그림자도 먹일 뿐, 피곤한 잠자리만 어지럽힐 따름이다.

이 마을에는 하루 셋 차례의 市內 버스가 들어 온다고 하나 時間에 쫓기는 現代人의 事情에는 너무나 딱하다.

그래서 이 宗中을 尋訪하기 위해서 城南市에서 韓國學力開發院의 出版業을 經營하는 在峻 宗親의 案內가 必要했다.

在峻 氏가 直接 運轉하는 自用 乘用車는 利川行 街道를 달려 廣州에서 草月面쪽으로 구비트니, 이 길은 이미 낮은 길이다.

이 池月里에는 開城尹公(諱 七霖)을 設壇行祀하는 곳이기 때문에 數年前부터 여러 차례 往來한 일이 있어 生疎한바는 아니나, 年前만 하더라도 좁은 路面에 屈曲이 심하던 곳이 이제 鋪裝이 되어 있어 더욱 爽快함을 느끼게 한다.

池月里는 넓은 地域을 占有하고 있으나, 人家는 드물어서 여기저기에 五·六戶式 自然部落이 보이는데 池月里의 鏡水마을은 左側으로 꺾어 들어 작은 橋樑을 건너고, 森林이 울창한 고개를 넘어서 陽地바른 丘陵에 자리 잡은 곳이 書雲觀正公派의 世居地이다.

이 마을은 두 개의 自然部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첫째 부락에서 約二百M 떨어진 다음 동리에 農事일을 하면서 宗事

를 主管하는 春永 氏의 집이 있다.

高麗 恭愍王朝에 諱 經公 李太祖가 登極하자, 다시 前職으로 불렸으나, 不事二姓의 뜻으로 불렀으니, 不事二姓의 뜻을 宗公의 아들인 旻이니 定宗朝에 隱逸로 薦擧되어 司憲府 執義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의 諱는 自行이니 十八歲에 賢良科에 薦擧되어 星州·廣州·羅州의 牧使와 平安·慶尙兩道의 監司를 지냈다.

監司公의 아들 五兄弟를 두었는데, 伯演公은 砥平縣監을 지냈으며, 仲演公은 世宗 12年에 江原道 高城 別試에서 文科及第하였으나 承文館 校理에 서 버스를 마치고 叔演公은 楊州牧使, 李演公은 主簿이며, 또 枝演公이 있었다. 그러나, 伯演·仲演과 枝演의 三公은 後孫이 없고, 叔演公과 季演公의 後孫이 書雲觀正公派의 宗中을 이루고 있는데 池月里에는 叔演公 後孫의 世居地이다.

특히 叔演公의 子孫에서는 六代의 文科及第者와 그 중에서 四代의 湖堂(賜暇讀書)의 恩典이 輩出 되었으니, 이는 李朝 五百年을 통해서도 드문 家門이라 할 수 있다.

叔演公의 아들 悠齋公(諱 希壽)은 文科에 及第하고 湖堂을 거쳐 벼슬이 大司憲에 이르렀고 글씨는 草書와 隸書가 모두 능하여서 그 筆蹟이 大東書法에 올라 있으며, 아들 東阜公(諱 魯) 또한 文科에 及第, 湖堂을 거쳐 直提學에 이르렀고, 筆蹟은 또한 大東書法에 올라 있으며 아들 南厓公(諱 弘)은 文科에 壯하고 湖堂을 거쳐 벼슬은 典翰에서 그치지 않았으니 乙巳土禍때, 尹元衡의 以妾爲妻의 非理를 論하다가 罪을 받고 尹元衡이 造作한 罪目으로 甲山의 謫所에서 世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또, 그의 아들 荷堂公(諱 瞻)도 文科에 及第하고 湖堂을 거쳤으나 벼슬은 校理에서 그치지 않았다. 公은 李退溪의 門人으로서 荷谷許

蔚·荷衣 洪迪과 더불어 三荷學士로 불렸는데 李栗谷의 일을 고집이 말하다가 임금의 命을 거슬리게 하여 知禮(慶北 金陵) 縣監으로 左遷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西堂公(諱 誠立)도 文科에 及第, 弘文館 著作으로 있을 때 壬辰倭亂을 만나 宣陵과 靖陵을 守備하면서 陵軍을 募集하여 抗敵하다가 戰死하였는데, 夫人 陽川許氏는 女流詩人으로서 有名한 蘭雪軒이며 西堂公이 아들 없이 아우 老隱公(諱 正立)의 아들 駱峰公(諱 振)으로

人과 마찬가지로 朋黨과 斜陽을 함께 하였으니 甲戌換局後로 벼슬에 뜻을 버리고 爲己之學으로 後進의 養成에 힘을 기울였다.

肅宗 15년에 있었던 己巳換局은 禧嬪張氏의 所生인 胸(後日)에 景宗을世子로 冊봉하자 南人에 反對한 西人의 首領 宋時烈과 退憂堂 金壽興 등이 流配賜死되고 南人이 得勢한 事件인데 이때 駱峰公의 孫子 黃海兵使公(諱 叔)은 西人의 主張을 正論이라 하다가 朋黨의 非議를 입었으나 이 일로 인해

서 入嗣하니, 또한 文科에 及第하여 吏曹參議를 지냈다.

荷堂公의 아우인 夢村公(諱 晬)은 伯氏와 더불어 退溪門下에서 修學하여 謁聖文科에 及第하고 輔國判中樞府事를 지내 고 清白吏로 記錄되었는데, 諡號는 昭懿公이며, 李演公의 아들 松齋公(漢傑)도 文科에 及第하고 執義를 지냈다.

그 밖에도 小科進士·生員)에 合格한 분과 蔭官으로 補職된 분은 모두 기록하지 못하나, 退溪先生에게 師事해서 嶺南學院 正言을 지냈고, 아들 秋山公

서 甲戌獄事에는 禍를 입지 않았으니, 이는 大司憲을 지내고 領議政에 追贈된 鳴阜 愷應協의 사위라는 점에서 볼 때, 필경 廢妃(仁顯王后)의 復位를 바랐다는 假想도 있을 수 있다.

甲戌獄事가 있은 후, 百餘年 동안은 모두가 故里인 鏡水의 나 또는 驪州의 山谷에서 隱居하면서 學文에만 뜻을 두다가, 正宗朝에 正言公(諱 懷)이 謁聖文科에 壯元及第하였고 楓城은 三階의 階段式으로 整地되어 있는데 上端에는 南厓公과 荷堂公의 父子를 各各 配位와 合葬하였고 中段에는 壬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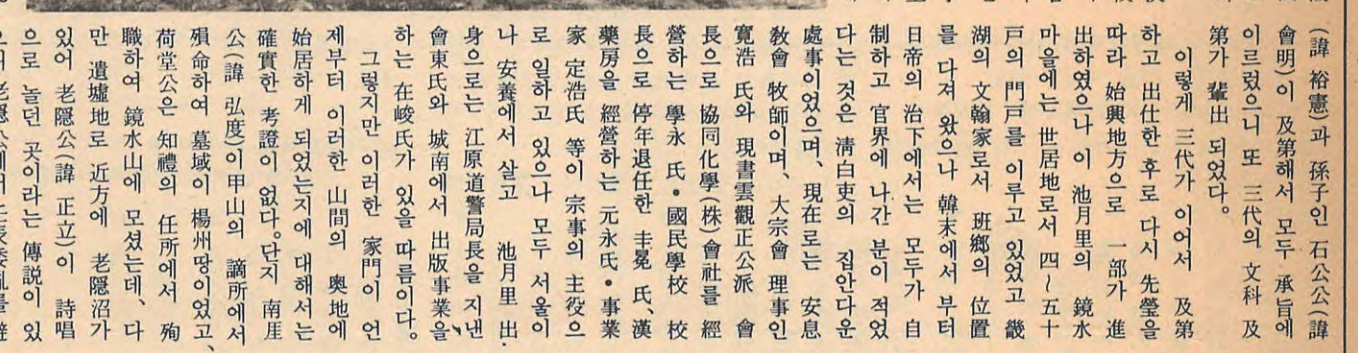
倭亂에 戰死한 西堂公과 平昌郡守를 지낸 老隱公의 兄弟를 各各 配位合葬하였으며, 下段에는 女流詩人 蘭雪軒의 墓所와 그 옆에는 全國詩歌碑建立同好會에서 夫人의 詩碑가 세운 建立되어 있어 京畿道紀念物 第90號로 指定되었는데 이 墓域은 一九八五年에 起工한 高路道路敷地에 編入된 옛 터전에 서 이곳으로 緬禮하였는데 後孫의 至極한 努力으로 華麗하게 整理된 墓域은 道路便의 風致에도 一翼이 될만하다.

이 鏡水마을에는 數十年前만 하더라도 四·五十戶가 門中을 이루고 살았으나 지금은 春永 氏를 비롯해서 八家口만이 故鄉을 지키면서 先祖의 옛터와 先塋의 守護를 자랑하고 있다.

또 草月面에는 또 하나의 書雲觀正公派 門中이 있으니 利川街道의 남촌 主君소에서 건너편에 보이는 島坪里이다.

이 마을에는 中宗朝에 文科及第하고 執義를 지낸 漢傑公의 後孫으로 公의 後孫이 南原에 살았는데 肅宗朝부터 桑梓의 近方인 이 마을에 始居하게 되었으며 鍾善氏를 비롯해 17·18家口가 農業에 從事하고 있고, 執義公의 後孫의 大部分은 淳昌을 本據地로 湖南一帶에 살고 있다.

蘭雪軒 陽川許氏 墓 및 詩歌碑



前大宗會副會長

金 用 秀

(都評議公派)

서울 杏堂洞 128-818
전화: 293-4028

翼元公派

金 湧 信

木浦市 南橋洞 八七

提學公派

金 道 應

天原郡 東面 長松里

*上洛君文英公(諱恂)編

문영공(文英公)의 휘는 순(恂)이다. 자(字)는 귀후(歸厚)이다. 충렬공(忠烈公)의 세째 아들이다.

고려 고종(高宗) 四五年(戊午) 一五八(一五八)에 출생하니, 밖으로 용모가 단아(端雅)하고, 수미(粹美)하며, 안으로 기화(氣化)가 풍만하고, 재예(才藝)가 비범하여 충렬공께서 여러 아드님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었다.

이 때, 충렬공께서는 이미 四七세의 중신(重臣)으로 삼십여 성상을 나라에 몸받쳐 오면서, 몽고의 침입으로 초토화 된 국토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미 몽고의 직할지가 되어 버린 서북면(西北面)·黃海·平安道의 적지에서 백성을 위무(慰撫)하여 인심과 신망을 얻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몽고에서는 고강도(江都)에서 출륙(出陸)하라"는 조건으로 강화(講和)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때에 공이 출생하였다.

충렬공께서 만득(晩得)의 공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만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一六세에 선유(先蔭)으로 보직(補職)되어, 재상의 열에 올랐으나, 문과(文科)의 과거(科擧)를 치루지 못한 여한을 항상 품고 있었다.

조부(祖父)인 직사관(直史) 館·輝敏成(公)과, 아버지 상서공(尙書) 諱孝印(伯父) 문장공(文簡公) 諱孝恭(伯父) 두 문과에 급제하였지만, 혼란한 시기에 겨를이 없어, 응시(應試)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조상에 대한 득죄로만 생각하는 충렬공은 공(公)에게 급제에 대한 기대를 걸고 그지없이 사랑하셨다.

그 때, 공으로 하여금 을사(應試)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열십이 공부에만 열중하게 함으로써 서기 一七九(一七九)년(충렬왕 五·己卯)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二십二세 때이었다. 그리고 다음해 정진(庚辰)에는

충렬공께서 관 고리군 도원수(都元帥)로서 二차 동정(東征)의 장도(壯途)에 있을 때, 중형(仲兄)과 자형(姪兄) 조변(趙彦) 등이 모두 출정하였는데, 공도 함께 따라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너는 문신(文臣)으로서 차



하고어진 성품을 기르고 더욱 학문을 닦아 국가와 백성을 위하란 선정을 베풀어라"하면서 허락하지 아니 하였었다.

그해 五월에 충렬공은 정동행(征東) 중 遼東(遼東)의 遼陽(遼陽)에서 洪茶丘(洪茶丘)가 인솔하는 몽고군과 함께 함포(合浦)·馬山(馬山)을 출발하여 곧바로 대마도를 진격하였다. 이 때, 충렬공은 그 효심(孝心)에 감탄하여 얼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원(元)나라와 강화(講和)가 성립되고, 충렬공이 하정사(賀正使)로 갈적에는 비공식(非公式)으로라도 번번히 수행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론(傳論)에 나타나, 「명령을 배반한 무례(無禮)를 사죄 하고 용서를 빌었고 충렬공은 그 효심(孝心)에 감탄하여 얼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원정(遠征)도 전역(前役)과 같이 불의의 태풍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대마도를 비롯해서, 일기도(壹岐島)·지하도(志賀島)를 거쳐 하가다(博多)에 이르러는 동안에 올린 전과(戰果)는 매우 컸다고 사록(史錄)에는 실여 있다.

이러한 위업을 무릅쓰고, 사지(死地)에 몸을 던져, 충(忠)과 효(孝)를 다한 공훈으로 말미암아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되었고 다음 해에 상주(尙州) 判官(判官)이 된 공은 외(外)에 나가서도 더욱 선정(善政)을 베풀어서, 그 명성이 조정에까지 들렸으며, 임기(任期) 내에 내직(內職)으로 소환되어서 전법(典法)·통예(通雅)·문사(文法) 郎(郎) 通禮門事로 승진되었다가 다시 고공(高公) 정상이 되었다.

충렬공께서 관 고리군 도원수(都元帥)로서 二차 동정(東征)의 장도(壯途)에 있을 때, 중형(仲兄)과 자형(姪兄) 조변(趙彦) 등이 모두 출정하였는데, 공도 함께 따라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너는 문신(文臣)으로서 차

충렬공께서 관 고리군 도원수(都元帥)로서 二차 동정(東征)의 장도(壯途)에 있을 때, 중형(仲兄)과 자형(姪兄) 조변(趙彦) 등이 모두 출정하였는데, 공도 함께 따라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너는 문신(文臣)으로서 차

충렬공께서 관 고리군 도원수(都元帥)로서 二차 동정(東征)의 장도(壯途)에 있을 때, 중형(仲兄)과 자형(姪兄) 조변(趙彦) 등이 모두 출정하였는데, 공도 함께 따라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너는 문신(文臣)으로서 차

충렬공께서 관 고리군 도원수(都元帥)로서 二차 동정(東征)의 장도(壯途)에 있을 때, 중형(仲兄)과 자형(姪兄) 조변(趙彦) 등이 모두 출정하였는데, 공도 함께 따라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너는 문신(文臣)으로서 차

충렬공께서 관 고리군 도원수(都元帥)로서 二차 동정(東征)의 장도(壯途)에 있을 때, 중형(仲兄)과 자형(姪兄) 조변(趙彦) 등이 모두 출정하였는데, 공도 함께 따라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너는 문신(文臣)으로서 차

충렬공께서 관 고리군 도원수(都元帥)로서 二차 동정(東征)의 장도(壯途)에 있을 때, 중형(仲兄)과 자형(姪兄) 조변(趙彦) 등이 모두 출정하였는데, 공도 함께 따라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너는 문신(文臣)으로서 차

事務所 서울特別市永登浦區永登浦洞二街一三番地
電話 六七八一~六〇七〇
自宅 서울特別市永登浦區文來洞四街二三番地
電話 六三三一七 九三三
六二五一 三三九番
새마을금고

金 相 天

提學公派

翼元公派

金 太 圭

尚州市西門洞一三七一五

提學公派

金 慶 會

大邱市北區大峴三洞五〇六一二

按廉使公派

金 泰 錫

서울강서구 방화1동 四九一五三

事務所 서울特別市永登浦區永登浦洞二街一三番地
電話 六七八一~六〇七〇
自宅 서울特別市永登浦區文來洞四街二三番地
電話 六三三一七 九三三
六二五一 三三九番
새마을금고

隨 聞 隨 錄

서울 城東區 紫陽洞
翼元公派 在 冕

* 과대망상은 허영병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어쩌면 그런 욕심이 있었기에 발전도 있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할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현재에 비해 보다 나은 나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좇는 이 속성이 내면적인 진실성을 함께하지 못하면 발전 심리의 단계를 벗어나 내 분수를 어기고 내가 나를 속이는 허영병에 빠진다.

허영이란 내가 나를 모르는데서 오는 무지의 병이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허영이라는 병도 쉽게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를 닦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내 생활에서 밖으로는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허영으로 인해오는 많은 병들을 본다.

내가 나의 능력을 알지못해 생기는 허영병이 과대망상이라는 병이다. 이것은 내 분수를 알지 못하게 하며 내가 앉을 자리를 모르게 하고 내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매우 어처구니없는 욕심을 내게 한다.

자기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사회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터무니 없는 지위를 탐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멸망하고 주위나 사회에 많은 폐를 끼치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본다.

* 부귀와 권세를 즐기지 말라.

부귀와 권세를 지나치게 즐겨서는 안된다. 사람이 항상 부귀와 권세를 즐기는 마음이 충만하면 몸과 명예를 가벼히 하여 의지와 절개가 꺾이고 청렴과 수치가 상실되어서 의리가 망가지고 비웃음과 꾸밈음이 따르며 남을 좇으려다가 두려운 지경에 부닥치고 작은 이익에 악착스러워지며 말이 구차한 지경에 이르면 팔을 눈 앞에서 걷어 붙이고 몸을 아래 것들 틈에 어울리기도 하는데, 작게는 몸을 망치고 크게는 더러운 이름을 퍼뜨리게 될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자탄을 받게도 되어 만고의 죄인이 되는 예가 허다하니 어찌 슬프다 하지 않으리요.

옛날부터 사람이 재앙과 환난은 부유하고 귀한 집에서 생겨나고, 사람의 호절은 가난하고 천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능멸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까닭이 없이 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큰 화가 된다는 걸 미리 예측할 일이다. 화가 오는 것은 다 이욕에서 생기니, 구차하게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화가 어디로부터 생겨 나겠는가?

세력을 남용해서 남을 속이다 그 세력이 쇠약하면 남이 반드시 나를 속이게 되고 재물을 믿고 남을 없신여기다 그 재물이 흩어지면 남이 반드시 나를 없신여기게 된다. 부유하고 귀하면서 교만하고 사치하는 사람은 두려워 할것이 못되고, 가난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가히 두려워 한다는 깊은 뜻을 명심하고 명심하여야 한다.

* 사람으로써 할일과 되는일

● 여덟가지 마땅히 할일(八當)

1. 글자를 읽을때 헛된소리를 말고 마땅히 음을 분별하라.
2. 글을 논할때는 회롱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마땅히 참 뜻을 찾아라.
3. 말을 할때는 높고 급한 말로 하지 말고 마땅히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라.
4. 걸음 걸이는 산만하고 방자하게 하지 말고 마땅히 침착하고 조용하게 하라.
5. 기쁜일을 만나도 가볍게 행동 하지 말고 마땅히 먼 앞일을 생각하라.
6. 노여움을 갑자기 나타내지 말고 마땅히 천천히 살피라.
7. 일을 의논할 때 제멋만 고집하지 말고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라.
8. 어떤 일을 행할때 특별히 다르게 하지 말고 마땅히 세상풍속을 따르라.

● 여덟가지 반드시 되는일(八必)

1. 드나드는 일을 자주하지 말라. 그리하면 학업이 반드시 거칠게 된다.

2. 벗과 사귀어 놀때 회롱하지 말라. 그리하면 틈이 반드시 싹트게 된다.
3. 밥을 먹을때 배부르게 먹지말라. 그리하면 기운이 반드시 게으르게 된다.
4. 술을 마시는데 정도를 넘지말라. 그리하면 병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5. 손님이 오면 늦게 나가 맞지말라. 그리하면 정이 반드시 멀어지게 된다.
6. 남에게 준건 경솔하게 빼앗지 말라. 그리하면 뉘우치는 일이 반드시 많아지게 된다.
7. 나라의 정사를 망령되게 논하지 말라. 그리하면 근심이 반드시 일게 된다.
8. 남의 잘못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욕이 반드시 다다르게 된다.

* 성실의 뜻

● 성실은 두가지 뜻을 갖는다.

첫째 : 속이지 않는것이요, 거짓이 없는 것이다.

둘째 : 나의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거나 나의 양심껏, 능력껏, 성심 성의껏 하는 것이다.

전자는 도덕적 의미가 강하고, 후자는 활동적 의미가 강하다. 너의 참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 하여라 이것이 성실이다.

성실은 만인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대도요, 고급에 통하는 생활의 진리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성실을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살아가자, 우리의 앞날에는 반드시 행복의 따스한 태양이 비칠 것이다. 성실은 곧 참이다. 거짓이 없는 것이요, 속이지 않는 것이다. 성실은 만가지 선의 원천이요, 거짓은 만가지 악의 근원이다.

성실은 천하 만인이 걸어 가야할 사람의 태도요, 정도요, 상도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람의 보편적인 가치다.

성실에 가까울수록 사람은 알차고 성실에서 멀어질수록 사람은 허망해 진다. 사람의 공부중요한 공부가 없다. 우리는 항상 분수 속에서 성실하기를 힘써야 한다.

* 적성에 맞는 자식 교육을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잘못되어 생기는 허영병이 치마 바람으로 과열 과외로 번져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던가?

그리하여 결국에 가서는 자식의 삶을 그르치고, 자식을 더욱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고 말았던 예를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보아 왔다. 뿐만 아니라 자식의 능력을 잘못알아 생긴 허영병은 유학 바람으로도 퍼졌다.

대학 시험에서 부모가 분수없이 기대했던 학교에 합격되지 못할 자식을 남보다 앞세우겠다는 허영에서 등을 밀어 외국유학을 보내곤, 결국은 그곳에서 학업도 계속하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혹은 식당에서 혹은 주유소에서 노동 일을 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명문 대가의 자녀들을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부모가 바라는 그 공부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렇거나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귀국할 수는 없고해서 때때로 몇몇 친구가 모여 밤에 공원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실컷 소리높여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목이 메이는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자식의 능력대로 분수에 맞도록 잘 이끌어 주었으면 당연히 제 몫을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갈 자식들을 분수없는 부모의 허영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생각하니 짝이나 가슴이 아팠다.

大 護 軍 公 派
金 順 會

서울·東大門區 典農3洞 54-19

大 護 軍 公 派

金 德 會

서울·東大門區 典農3洞 33-2

按 廉 使 公 派

金 鳳 會

서울·冠岳區 奉天6洞 1688-112
전화 : 882-8437



碩士學位論文

金方慶研究

清州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李相哲

● 略 歷 ●

- 1953年生
- 1981年 清州大學 역사교육과 졸
- 1986. 8 清州대학교 대학원 史學科 졸
- 현 清州신흥고등학교 교사.

제1차 遠征에서 패한후 莫大한 손실을 입은 高麗는 再遠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忠烈王 元年(1275) 正月에 侍中 金方慶 등을 元에 보내 국가의 情況을 말하고 此後 舉事時에는 戰艦과 軍糧을 담당키 어렵다고 하였다.¹¹⁹⁾ 그러나 元은 高麗에 艦船 軍需物資를 준비케 하므로¹²⁰⁾ 高麗의 이러한 노력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元은 다시 日本 征伐를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忠烈王 5년(1279) 6월에는 戰艦 9백척을 만들라¹²¹⁾ 하고 그들의 사신이 여러차례 와서 軍器를 점검하고 戰艦을 시찰함을 보아 日本 征伐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元은 忠烈王 6년(1280) 8월 日本 征伐의 구체적인 계획을 入朝중이던 忠烈王에게 통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析都와 洪茶丘는 蒙·麗·漢軍의 4만을 인솔하여 合浦를 출발하고, 范文虎는 蠻軍(南中國軍) 10만을 인솔하고 江南에서 출발하여 일단 一岐島에서 합쳐 日本을 공격하라”¹²²⁾ 는 것이었다. 제1차 遠征때와는 달리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그 목적을 기필코 달성코자 하였다. 또한 法에 準하여 準備를 시키는 한편 法度를 공포해서 軍需物資의 得失을 엄격히 하였으며,¹²³⁾ 軍人들의 行動 準則을 발표하는¹²⁴⁾ 등, 再遠征에 全力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⁵⁾

高麗는 忠烈王 6년 11월에 趙仁規등을 元에 보내 “小國已備兵船九百艘 梢工水手一萬五千名 正軍一萬名……”이라하여 準備 完了한 兵力을 보고함과 동시에 忠烈王 자신도 東征의 大小 軍情과 公事를 자신과 상의하고 공동으로 처리할 것을 청하고, 또 珍島 耽羅 日本 遠征에 功을 세운 金方慶에게 虎頭金牌을 줄 것이며, 전체 高麗軍을 그가 통솔해 달라고 요청하고, 東征 日字 연기등을 건의하였다.¹²⁶⁾ 이로 미루어 高麗가 제2차 日本 遠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겠다. 同年 12월에 元은 忠烈王을 中書左丞相行 中書省事(征東行省의 左丞相)으로 삼고, 金方慶으로 中奉大夫 管領高麗都元帥에 임명하여,¹²⁶⁾ 앞서 忠烈王이 요청한 軍事行動의 參謀나 統帥 參與權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였다.¹²⁷⁾ 그뒤 忠烈王은 左丞相에서 右丞相으로 昇格되어¹²⁸⁾ 再出征에 앞서 現地 실정을 가장 잘 아는 忠烈王으로 하여금 實權的인 位置에 臨하게 하였다.¹²⁹⁾ 그러나 이는 또한 高麗로 하여금 遠征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시키기 위한 것이며, 出征軍의 指揮權을 전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¹³⁰⁾ 이렇게 日本 遠征의 準備를 갖추고 忠烈王 7년(1281) 3월 金方慶은 析都, 洪茶丘와 같이 合浦로 向하였으며, 4월에는 忠烈王이 合浦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軍대를 査閱하였다.¹³¹⁾

이렇게 隊伍를 정비 강화한 蒙·麗·漢의 軍대는 同年 5월 3일 合浦를 출발하여 日本 征伐의 길에 올랐다. 연합군은 同月 26일 對馬島 佐賀浦에 상륙하여 島民들에게 투항할 것을 권유하다 武力으로 정복하고 一岐島로 向하였다.¹³²⁾ 對馬島, 一岐島에서의 勝戰이 高麗軍의 功임은 말할것도 없고 기타의 전투에서도 언제나 高麗軍이 主動이었다.¹³³⁾ 그러나 同月 癸亥條에 보면 忽魯勿塔의 船軍 113명과 梢工 36명이 풍랑을 만나 행방을 잃게 되었으므로 元에까지 보고하였다.¹³⁴⁾ 이것은 제2차 遠征 이래 최초의 遭難事였다. 그러나 6월 8일 金方慶은 金周鼎, 朴球 등과 함께 日本軍 3백여級을 배는 戰勝을 거두었으나, 洪茶丘의 元軍은 日本軍에게 패배하였다. 이튿날 洪茶丘가 다시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이때 軍중에 전염병이 유행하여 3천여 명이 사망했다. 그뒤에도 析都와 洪茶丘의 元軍은 여러번 싸워 불리하였고, 范文虎의 江南軍과 一岐島에서 합류하여 合同攻勢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江南軍이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연합군은 단독 攻勢를 취한바 있고, 수차례 실패한 洪茶丘는 回軍을 종용하기까지 하였으나 金方慶의 반대로 끝까지 대기하였다.¹³⁵⁾ 그러나 얼마 후 江南軍 10여만명이 戰艦 3천5백척에 分乘하여 도착하였으나 태풍을 만나 溺死者가 너무 많아¹³⁶⁾ 결국 제2차 日本 遠征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태풍을 만난 시기가 확실하지 않으나, 高麗史節要와¹³⁷⁾ 高麗史에는¹³⁸⁾ 다같이 6월로 되어 있으나(金方慶傳에는 8월), 高麗史 忠烈王 7년 7월에 “元帥 金方慶使中郎將朴晙泰諸軍至太宰府 累戰交綏而退 變船五十艘隨至復向其城……”¹³⁹⁾ 이라하여 7월까지 전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高麗史 忠烈王 7년 8월에 “別將金洪柱 自合浦至行宮 告東征軍敗 元帥等還至合浦”¹⁴⁰⁾ 라 한것을 보아 시간적으로 8월 초를 전후한 것이 확실하다.¹⁴¹⁾

한편 이번 遠征에서 돌아오지 못한 蒙古軍은 高麗史에 “……官軍不返者無虜十萬有幾”¹⁴²⁾ 라 하였으며 元史에서는 “……回至高麗境十存一二” “……征日本遇風丹壤喪師十七八”이라 하여¹⁴³⁾ 元軍 戰死者는 8할 내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高麗측 피해상황은 東征軍 9천9백6십명과 梢工 水手 1만7천2십9명중 돌아온자 1만9천3백9십7명이라 하여¹⁴⁴⁾ 水戰에 익숙치 못한 元軍에 비할바는 아니나 피해 수 없는 큰 손실이었다.

두번 遠征에서 실패한 원인이 태풍에도 있지만 水戰에 익숙치 못한 元軍이 용기를 잃은 점도 들 수 있겠다. 이는 제1차 遠征에서 金方慶등이 三郎浦에서 倭兵을 大破하고 다시 싸울 것을 청할 때 析都는 回軍을 주장하였고, 別將 劉復亨이 流矢에 맞아 軍士를 이끌고 배를 먼저 단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제2차 遠征에서도 金方慶의 高麗軍은 승리를 거두하였으나 元軍은 여러번 싸워 불리하였고 江南軍이 기일내에 도착하지 않자 또다시 回軍을 종용하였다.

오랜 戰亂으로 피폐한 高麗가 元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여 日本 遠征의 難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金方慶 때문이었다. 그는 出將入相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였으며 원만한 人格과 굳은 意志로써 公私의 難關을 극복하였다. 忠烈王 3년 首相으로 있을때에 韋得儒등의 誣告로 無慈悲한 고문을 당해서도 不義에 屈치 않는 굳은 意志로 이것을 극복하고 제2차 日本 遠征에 또다시 參與하여 局地戰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 註 119) 〈上揭書〉世家 卷28 忠烈王 元年 春正月 庚辰條
- 註 120) 〈上揭書〉同年 10月 壬戌條에 「以元將復征日本 遣 金光遠……修造戰艦」 또 同年 11月 癸巳條에 「元遣使來作軍器……」라 하였다.
- 註 121) 〈上揭書〉世家 卷29 忠烈王 5年 6月 辛丑條
- 註 122) 〈上揭書〉世家 卷29 忠烈王 6年 8月 乙未條
- 註 123) 〈上揭書〉同年 9月 丙辰條
- 註 124) 〈上揭書〉同年 冬 10月條
- 註 125) 〈上揭書〉同年 11月 己酉條
- 註 126) 〈上揭書〉同年 12月 辛卯條
- 註 127) 金澈珉, 前揭論文 PP. 35~36
- 註 128) 高柄翊 「麗代征東行省의 研究(上)」 〈歷史學報〉 14집 P. 49 (元에서는 右를 左보다 높혔음)
- 註 129) 朴亨杓, 前揭論文 P. 73
- 註 130) 高柄翊 「麗代征東行省의 研究(下)」 〈歷史學報〉 19집 P. 87
- 註 131) 〈高麗史〉世家 卷29 忠烈王 7年 4月 癸未條
- 註 132) 〈高麗史節要〉卷20 忠烈王 7年 5月條
- 註 133) 朴亨杓 〈前揭論文〉 P. 74
- 註 134) 〈高麗史〉世家 卷29 忠烈王 7年 5月 癸亥條
- 註 135) 〈高麗史節要〉卷20 忠烈王 7年 6月條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136) 〈高麗史節要〉卷20 忠烈王 7年 6月條
- 註 137) 〈上揭書〉同年 同月
- 註 138) 〈高麗史〉世家 卷29 忠烈王 7年 6月 壬申條
- 註 139) 〈上揭書〉同年 7月 甲寅條와 또 〈高麗史節要〉卷20 忠烈王 7年 7月條에도 비슷함.
- 註 140) 〈上揭書〉同年 8月 己卯條
- 註 141) 金澈珉 〈前揭論文〉 P. 37
- 註 142) 〈高麗史〉世家 卷29 忠烈王 7年 8月條
- 註 143) 金澈珉 〈前揭論文〉 P. 37
- 註 144) 〈高麗史〉世家 卷29 忠烈王 7年 11月 壬午條

獎學基金寄託者

- 拾萬圓 翼元公派 上默(中谷洞)
- 拾萬圓 江華郡宗親會 永守(日本)
- 五萬圓 大司成公派 光秀(三田洞)
- 五萬圓 大司成公派

- 貳拾萬圓 翼元公派 明燮(國會議員)
- 五萬圓 翼元公派 在光(永登浦)
- 五萬圓 翼元公派 煥(文來洞)
- 五拾萬圓 在日本宗親會員一同 天會(典農洞)
- 參萬圓 仁川宗親會 相順(典農洞)
- 參萬圓 大護軍公派
- 參萬圓 密直司使公派
- 貳萬圓 按廉使公派 德會(典農洞)
- 貳萬圓 按廉使公派 在會(奉天洞)
- 貳萬圓 翼元公派 冕會(紫陽洞)
- 貳萬圓 密直司使公派 榮應(弘濟洞)
- 貳萬圓 都評議公派 鍾應(大峴洞)
- 貳萬圓 都評議公派 秀鏞(香峴洞)
- 貳萬圓 提學公派 用道(香堂洞)
- 壹萬圓 提學公派 元道(香堂洞)
- 壹萬圓 副使公派 吾元(香堂洞)
- 壹萬圓 按廉使公派 乙禹(新堂洞)
- 壹萬圓 按廉使公派 禹乙(新堂洞)
- 壹萬圓 都評議公派 鏞學(利川洞)
- 壹萬圓 都評議公派 信鏞(利川洞)
- 壹萬圓 都評議公派 秀鏞(巨余洞)
- 壹萬圓 按廉使公派 默錫(清州洞)
- 壹萬圓 按廉使公派 錫錫(清州洞)
- 壹萬圓 提學公派 圭錫(高州洞)
- 壹萬圓 大司成公派 升慶(高州洞)

贊助人名單

三別抄 (11)

김방경은 희망적인 답변으로 잠시나마 임금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걱정을 다소나마 풀어드리자는 생각이었으나, 이 장용은 '어찌해서 가망없는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김방경의 소견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제, 다시 군신(君臣) 간에는 아무 말이 없고, 다만 힘없는 절음으로 끝났다는 듯이 뒤에 여섯 줄의 말과 자욱을 남기면서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틀면서 아득한 지평선을 향한 행진은 끝이 없었다.

아무도 말이 없던 사풍(朔風)을 맞이하면서 행진하기 일각(一刻)이나 되어서 이 장용이 겨우 입을 열었다. 이 장용은 텅수룩한 수염에 구슬같이 주렁주렁 달린 고드름을 떨리는 손으로 부비고, 턱은 겨우 가누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는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황제께서 전하(殿下)의 임조를 기다려서 출병의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다만 그의 체면을 세우려는 심산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조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인데, 어찌서 이번일이라고, 예외로 너그럽게 남기겠습니까, 친략의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요, 만물이 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동강의 이북이 몽고의 지배하에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고려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령국토는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정신만 빼

고 있는 백성들의 정신만 빼

왔는지 않는 한 그 땅은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 국토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설사 고려가 국토의 절반을 잃는다 하더라도 고려국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언젠가는 전국토를 환부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지금부터 어떠한 경우를 당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군신 각자가 필요합니다.

이 장용의 말은 진실이었다. 현재의 사정은 분명히 그와 같읍니다. 이 장용은 말을 끝내게 하려고 애를 쓰나, 그 말은 자꾸만 비장한 흐름으로 휘말려 가고만 있었다.

정월 십일에 일행은 겨우 동경까지 왔다. 이 곳에는 행 중서성(行中書省)이라는 기관이 있고, 두원가(豆蔻哥)라는 무장(武將)이 행 중서성사(行中書省事)로 임명되어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평장사(平章事) 조벽(趙壁) 등이 각각 병단을 거느리고, 야영(野營)중이며, 또 고려로 진발(進發)하라는 출동의 명령만 기다리는 몽가독(蒙哥)의 부대는 더욱 기세 당당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편, 김방경은 세조의 명령으로 몽가독을 따라 그 부대가 동경에 도착할 때부터 몽가독과 함께 기거(起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사정에는 정통하였다.

동경에서 하루를 지낸, 원군은 다시 연경(燕京)으로 떠

날 때, 김방경도 연경까지 따라 가고자 하였으나, 중서성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동경에 남아 있었다.

연경까지 하루의 거리를 남겨 두고 원군의 일행은 어느 촌락의 조그마한 절간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종이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조서(詔書)를 작성해서 사자로 홍다구(洪茶丘)를 보냈다.

「김(朕)이 즉위한 이후로 너희나라는 오랫동안 병란에 시달리고 있음을 민망하게 생각하여 너로 하여금 그 나라의 임금이 되어 잘 다스리라고 책봉하고 짐의 군대를 철수한지 이미 십년이 지났구나... 그 동안 너를 무마하고 보호하면서 안전을 위해 힘써 왔으나, 생각밖에 역신(逆臣) 임연(林衍)은 제마음대로 임금을 바꾸어 경안공(慶安公) 창(昌)을 임금이라고 세웠더니 이 일은 도무스런 일이고... 내 이를 용납할 수 없노라, 이미 행성에 명하여 군대를 보내게 함은 오직 임연 하나만을 처단하고자 함이며, 경안공은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으니 이를 용서하고, 그밖에 이에 부동하여 맹목적으로 움직인 무리는 일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홍다구로부터 이러한 세조의 조서를 받은 원종은 조서스럽게 한자 한자 읽어내려 갔으나, '임연(林衍) 토주(討誅)' 한 '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이 북계와 서해(西海)의 몽고 내부(內附)에 대한 언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원종은 이에 대한 궁중음을 풀기 위해 홍다구에게 시말(始末)을 물었으나, 그는 '아는 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어 하는 말이

「황제 폐하께서는 최탄의 충절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시려고 그러한 청원은 이미 폐

히 승락하신 줄 아오」

홍다구는 남의 일처럼 태연하게 대답하는 말 속에는 '그래서 망연하다'는 생각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듯 하였다.

「그 청원이란...?」

원종은 이미 짐작한 일이지, 놀라운 말에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

「그 북계(北界)와 서해(西海)의 육십여성(域)은 몽고에 내부(內附)하는 일 말이오?」

원종은 놀라움에 뒷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홍다구의 설명은 계속 했다.

「자비령(慈悲嶺)을 경계로 해서, 그 북방 일대는 몽고의 영토로 만들어서, 몽고에서 직접 통치 하시기로 결정된 줄로만 알고 있소」

이 말만 남기고 홍다구는 앞은 묵묵(默禮)로 알미운 냉소(冷笑)를 남기면서 사라져 버렸다.

원종과 이 장용은 착잡한 생각으로 사로 잡혔다. 홍다구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제 다시 어떠한 애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할 때, 그들의 눈앞은 캄캄하였다.

한편 동경에 체류하고 있는 김방경은 행 중서성(行中書省)을 통해 몽가독 부대의 일(一)로 향도역(嚮導役)을 수행하는 명령을 받았다.

뜻밖에 이러한 명령을 받은 김방경의 마음은 착잡할 따름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일은 몽가독의 부대가 만약 대동강 이남으로 내려간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인니, 그 대책에 고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몽고의 군인들은 무식자(無識者)의 집단으로서 알고 있다면 말 타고 활 쏘는 채주와 사나운 성질뿐인데, 만일에 이러한 부대가 대동강을 건너서 개경으로 향한다면, 임연(林衍)은 이미 반역한 몸이라, 소영(所領)의 삼별초를 출동시켜 이에 맞선다면 삼별초는 임연의 손아귀에서 약탈한 행동으로 임연의 비위를 맞추어서 사소한 공이라도, 세운다면 벼락 감투를 넘기고 있는 그 삼별초와 사나운 몽고군이 부딪친다면 그사이에서 고초를 당하는 것은 고려의 백성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김방경의 마음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었다.

이래서 김방경은 생각 끝에 상소문(上訴文)을 올리기로 작정하였다.

「만약에 관군이 서경까지 가서도, 대동강을 건너가는 일이 있다면, 고려의 왕정은 크게 요동되어, 혹시 큰 변란이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원하옵는데,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성지(聖旨)를 내리시어 절대로 대동강은 건너지 못하게 하심을 원드려 비나이다」

이러한 내용의 상소문을 작성한 김방경은 중서성(中書省)의 관원(官員)에게 제출하자, 그들도 「과연 그 생각이 옳다」고, 「고려에 진주할 몽가독의 장병은 대동강을 건너지 말 것이며, 만약에 강을 건넌다는 사실이 있을 때는 엄한 처벌을 하리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몽가독의 '천 병력'은 드디어 고려로 출발 하였다.

배설에 쌓인 아득한 평원, 밝고 맑고 또 밝아 가도 끝이 없는 행진이 수십일이나 계속한 끝에, 압록강의 두들한 얼음판을 건너서 의주에 몽가독의 대군단은 야영(野營)의 진을 쳤다. 그들은 이곳에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그곳의 사정을 관찰한바 북계와 북계의 육십여성(域)은 몽고와 북계의 신이 일어난 반란의 와중(渦中)에서 모조리 살해되고, 지금은 천지에서 백성들은 그런대로서 룬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박주(博州)의 수령장빈(姜份)과 연주(延州)의 수령권천(權闡)만은 백성들의

귀에서 약탈한 행동으로 임연의 비위를 맞추어서 사소한 공이라도, 세운다면 벼락 감투를 넘기고 있는 그 삼별초와 사나운 몽고군이 부딪친다면 그사이에서 고초를 당하는 것은 고려의 백성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김방경의 마음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었다.

이래서 김방경은 생각 끝에 상소문(上訴文)을 올리기로 작정하였다.

「만약에 관군이 서경까지 가서도, 대동강을 건너가는 일이 있다면, 고려의 왕정은 크게 요동되어, 혹시 큰 변란이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원하옵는데,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성지(聖旨)를 내리시어 절대로 대동강은 건너지 못하게 하심을 원드려 비나이다」

이러한 내용의 상소문을 작성한 김방경은 중서성(中書省)의 관원(官員)에게 제출하자, 그들도 「과연 그 생각이 옳다」고, 「고려에 진주할 몽가독의 장병은 대동강을 건너지 말 것이며, 만약에 강을 건넌다는 사실이 있을 때는 엄한 처벌을 하리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몽가독의 '천 병력'은 드디어 고려로 출발 하였다.

배설에 쌓인 아득한 평원, 밝고 맑고 또 밝아 가도 끝이 없는 행진이 수십일이나 계속한 끝에, 압록강의 두들한 얼음판을 건너서 의주에 몽가독의 대군단은 야영(野營)의 진을 쳤다. 그들은 이곳에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그곳의 사정을 관찰한바 북계와 북계의 육십여성(域)은 몽고와 북계의 신이 일어난 반란의 와중(渦中)에서 모조리 살해되고, 지금은 천지에서 백성들은 그런대로서 룬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박주(博州)의 수령장빈(姜份)과 연주(延州)의 수령권천(權闡)만은 백성들의

귀에서 약탈한 행동으로 임연의 비위를 맞추어서 사소한 공이라도, 세운다면 벼락 감투를 넘기고 있는 그 삼별초와 사나운 몽고군이 부딪친다면 그사이에서 고초를 당하는 것은 고려의 백성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김방경의 마음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었다.

우禮(禮)를 받고 있었으니, 이 두 사람은 모두 김방경의 매부(妹夫)이었다.

이 지방의 백성들은 전일에 김방경으로부터 입은 은혜와 덕망에 젖어 온 사람들이로서, '세상은 아무리 변하더라도 김공(金公)의 은혜만은 잊을 수 없다'하고 최탄의 말을 듣지 않고, 성을 잘 보전하고 있었다.

이주에서 휴식을 취한 몽가독의 부대는 서경(平壤)에서 진영을 정리하여 주둔하고, 김방경은 강도(江都)에 가서 국왕이 없는 동안 궁궐을 지키고 있는 순안후(順安侯)에게 그동안의 전말을 보고하고, 다시 서경으로 돌아오니, 그곳의 늙은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혹은 발앞에서 절을 하고, 혹은 다리를 틀어 안고 울면서 하는 말이,

「공(公)께서 어찌 해서 이제 오셨습니까? 만약에 공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최탄과 한신 같은 무리가 어찌 감히 그다지도 무모한 장난을 하였겠나이가!」

하며 조석으로 찾아와서 물자가 없는 중에서도 무언가 귀한 음식을 차려 진심으로 대접하였고 또 최탄과 한신도 아찔 저녁으로 찾아와서 배알하고 사과 하였다.

그러나 최탄의 무리는 속셈이 단곳에 있었으니, 몽고병의 힘을 빌려 나라를 송두리채 삼키자는 흉계를 품고 매일 같이 몽가독의 군문에 출입하면서 간사한 계교로 유인하고 진귀한 보물을 바치면서 교활한 우습으로 아부하고 있으나, 김방경은 언제나 좋은 방책을 세워 은밀히 방지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元榮 記〕

대사(大司) 공(公) 파(派)

副使公派

金 吾 鳳

서울 中區 新堂 三洞 三七二

按廉使公派

金 乙 學

利川郡 大月面 君陽里 郡

都事公派

金 禹 鏞

金浦郡 通津面 서암리

都評議公派

金 漢 秀

서울 松坡區 巨余洞 五七七—四

按廉使公派

金 仁 默

清州市 牛岩洞 三九八—二〇〇

大邱教育大學

庶務課

金 升 會

翼元公派

金 元 植

浦項市 龍興二洞 六一九—七

翼元公派

金 在 冕

서울 城東區 紫陽洞 六九五

한양아파트 五棟 一〇五

전화 四四六一—六五七四